

韓國의 甲冑 (3)

— 頭釘甲을 中心으로 —

李 康 七

머릿말

頭釘甲이 現在 傳存하기로는 昌德宮 西行閣에 展示되고 있는 傳御用 甲冑를 비롯하여 陸軍士官學校 軍事博物館 所藏인 李忠公의 五代孫 李鳳祥將軍이 着用하였다는 元, 副元帥用 甲冑가 있고, 또한 慶北星州郡碧珍面海平洞 呂相愷氏 所藏의 呂伴將軍의 甲冑가 있으며 ①,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國立民俗博物館所藏品과 멀리 오스트리아 「빈」市 所在 藝術史博物館②에 까지 流出된 甲冑等を 꼽을 수 있다.

이 頭釘甲은 表面上으로 觀察할 때는 皮革을 主材로한 皮甲과 別差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裏面을 살펴보면 그 멘드리에 있어 顯著한 差가 있는 것으로 頭釘甲은 本論에서 詳述하겠거니와 그 片札의 매우 微弱하고 形式的인데 反해 皮甲의 境遇는 매우 堅固하고 實用的인 것이다. 그러니까 頭釘甲은 몸을 保護하기 爲해 着裝하였다기 보다는 儀禮的인 行事때 着裝한 儀式用 甲冑이며 皮甲은 戰時에 着裝하는 戰鬪用으로 區分하는 것이 打當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前稿에 이어 頭釘甲에 對하여 그 形態와 製法을 살펴 보고자 하거니와 便宜上 國立民俗博物館所藏 頭釘甲은 民俗館甲冑로 하고, 오스트리아 「빈」市 所在 藝術史博物館所藏 頭釘甲은 藝史館甲冑로 各各 略稱하기로 한다.

一、民俗館甲冑

(所藏番號 一二五八、二二一、二一一號) ③

民俗博物館에 이 갑옷이 들어오기는 一九六八年 八月 九日 서울特別市 城東區 杏堂洞 三一九番地에 當時居住하였던 유재상씨로부터 購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갑옷이 누구의 것이었으며 또한 어느 階層에서 着裝하였느냐에 對한 遺傳來歷에 對해서는 알길이 없고 다만 갑옷만이 入手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저 그 形態나 만들새로 보아 軍高位層에서 着裝하였던 것이로구나 하는 推測뿐이나 다만 그 색깔이나 五爪龍裝飾이 어깨와 아랫단에 附着되어 主目되며,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一、表面의 形態

이 갑옷은 것이 둥글게 과진 團領袍形式이고, 소매는 팔꿈치에 이르며 전체길이는 무릎에 미칠 程度로 比較的 짧고 겨드랑이와 뒷솔기 髻部 아래는 트인 模樣이다. (그림 一참조)

결감은 鮮명한 붉은 羽緞이며 옷단 周圍에는 朱白色 毛皮로 너비 五센치 程度를 둘러어 한결 포근한 감을 풍기게 하였다. 그리고 앞판 左右에는 衄의 머리 爪가 바깥쪽을 向해 固定시켰으며, 아랫 자락 左右 中央에는 五爪龍이 마주 보고 구름과 불꽃무늬가 피뽀는 如意珠를 戲弄하는 模樣을 衄되로 만들어 貼付하였다. (그림 二참조) 한편 뒷판에는 등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約 五十센치까지 는 모두 衄의 頭釘이 施定되고 그 以下, 即 窟窿이 以下는 約 五十센치程度 트이게 하고 亦是 여기에도 毛皮를 둘러었다. 그리고 양쪽 中央에는 衄의 판으로 호랑이를 浮彫하여 固定하였는데 그 姿勢가 立體的인 動作이다. 즉 사나운 이빨을 드러낸 모습에 앞발을 양쪽으로 힘차게 내어 디디고, 꼬리는 위로 뻗었으며 뒷다리는 앞으로 몸을 밀어주는 형상이다. 한편 등(背) 上部 左右와 겨

트량을 連한 左右에는 鍍金製環을 貼付하였다.

二、裏面の形態

복은 羽緞 袷감에 이어 白色무명 한점으로 속을 받치고 그 다음으로 北青色雲寶緞을 뒀다. 그리고 구리판(銅板)을 세로 五、五센치, 너비 四、五센치로 하여 아랫쪽은 모서리를 둥글리고, 윗쪽은 그대로 方形이다. 그 内部에는 周圍帶線을 陽出시키고 그 正中에는 복(福)주머니 그리고 輪寶、扇寶紋을 陽出한 後 옷칠로 곱게 處理하였다(그림 三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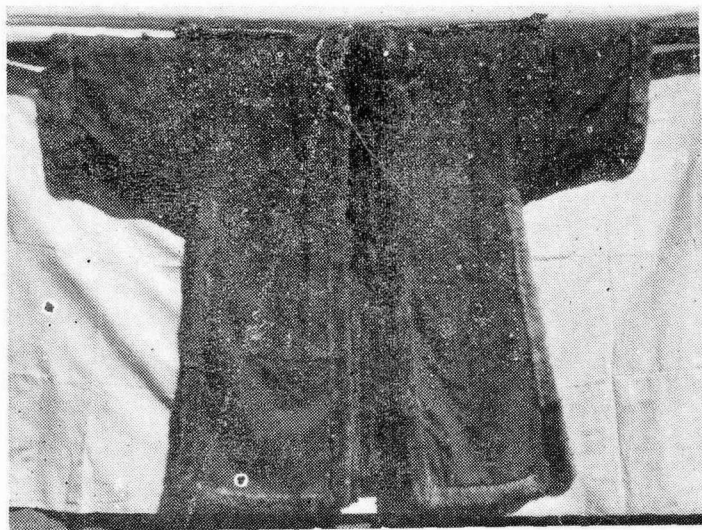


圖 1 잡옷 앞면



2 오조름문

이렇게 앞은 판에 무늬를 넣어 製造한 구리 미늘은 衄쇠뭇으로 表面에서 安으로 連綴하여 앞쪽으로부터 소매에 이르기까지 세로 열두줄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는 구리판을 미늘식으로 連綴하는데 한줄은 머리를 두개의 뭇으로 左右에 固定시키고, (●) 또 한줄은 中央에 만이 (○)로 固定하였다. 한편 어깨편에는 片札이 팔쪽으로 돌려 접치게 하므로서 그 뭇은 길이로 두개를 固定하게하였는데 (●) 그 규격은 세로 五、六센치 너비 四、七센치로 하고 뭇쇠 간격은 上邊에서 ○、八、二、五、二、四순이며 左邊이 一、五센치 程度로 하였다.

뒷판의 상태는 너비가 四四、四센치로 正中 즉, 등술기를 起點으로하여 十行 九段으로 銅板을 連綴하였는바 그 連綴方法은 앞면과 같이 윗部分을 左右로 두곳 또는 중앙 한곳을 固定하였고, 그 위에 前後面을 北青色雲寶紋으로 안을 받쳐 着用者의 動作을 便利하게 하였다. 따라서 同一布地로 길이 九十八센치 너비 十二센치의 안옷 곶름을 달았다. 한편 그의 장식은 鍍金製 곶름으로 지름 四、九센치 안지름 二、一센치를 끝부분에 달았다.

三、깃과 소매부리

깃에는 앞단 자락에 연

해 毛皮를 대고 그 外部로 새로운 感覺을 주게 하였으니 이는 그 周圍를 澤瀉 以요로 裝飾한 것이라 하겠다. 이 澤瀉의 衄의 裝飾은 길이 五、五센치로서 衣領周圍에 만이 連綴하였는데 이는 앞 衄處를 起點으로 左右를 감사 한결 安定感을 주는 느낌이다(그림 四참조)。 특히 이 澤瀉의 由來는 예로부터 蜻蛉、鷲鷹、栗과 더불어 尙武紋으로 널리 使用되던 것이다④。 한편 소매는 亦是 腕甲이 따로 있기 까닭에 팔꿈치에까지 이르러 하였고, 대개의 경우 소매로 배래쪽은 꿰매지 않는 식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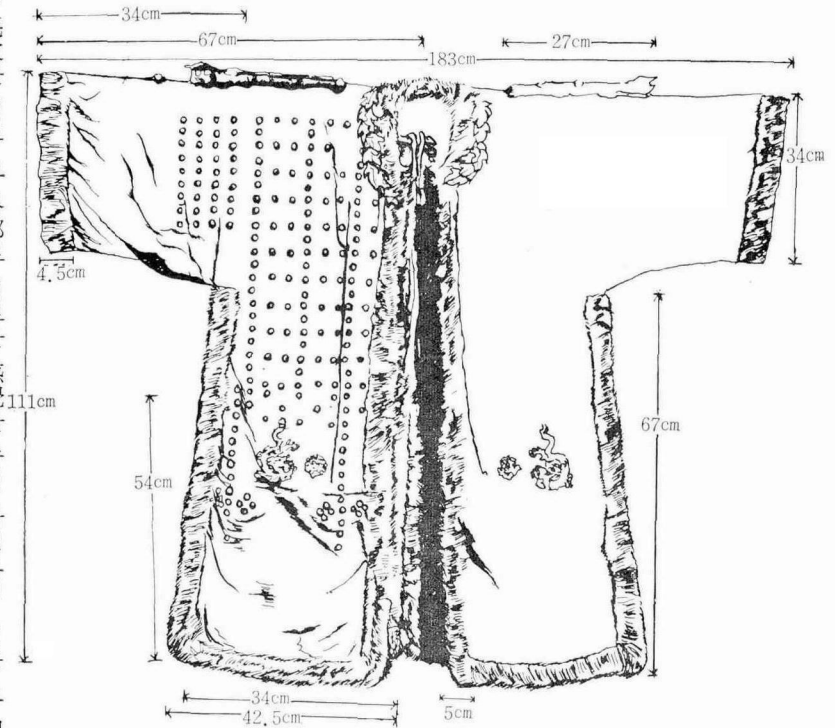


圖 1-1 갑옷 實側圖

이 갑옷은 筒袖인 것이 特徵이며, 亦是 毛皮를 둘러었다⑤。

四、肩 龍

어깨 左右에는 龍의 裝飾과 如意珠를 달아 매우 威嚴이 있어 보인다. 龍의 길이는 總 二十七、八센치로서 그의 軀體는 매우 精巧한 솜씨로 鑄造되었다. 우선 그 머리 部分의 口는 장식을 利用하여 아래위로 作動하게 되었고 따라서 口안에서 혀(舌)가 同時에 움직이게 한 것이 特徵이다. 그리고 앞자락의 龍과 같이 발가락이 다섯개로서 몸은 四等分으로 나누어지게 하였다. 즉 머리 部分이 하나, 몸통 部分이 둘, 꼬리 部分이 하나인데 이는 모두 内部에서 장식을 利用하여 움직이게 하였다. 그런데 이 龍을 어깨에 固定하는데는 길은 靑色, 안은 白色으로 二重皮革을 利用하였고, 따라서 그 周圍는 갑옷과 함께 白色으로 堅固하게 縫着하였다. 또한 龍의 머리 앞에는 玉으로 如意珠를 만들고 그 玉을 鑲製 火焰紋裝飾에 박아 貼付시켜 着用자가 팔을 움직일 때 마다 龍이 입을 벌리는 것은 勿論 몸이 폼틀 거리게 되었다(그림 五、六참조)。

二、藝史館甲冑

우리나라 甲冑가 오스트리아에 있고 또한 舊韓末에 皇帝로부터 下賜받았다 하니 먼저 우리나라와의 國交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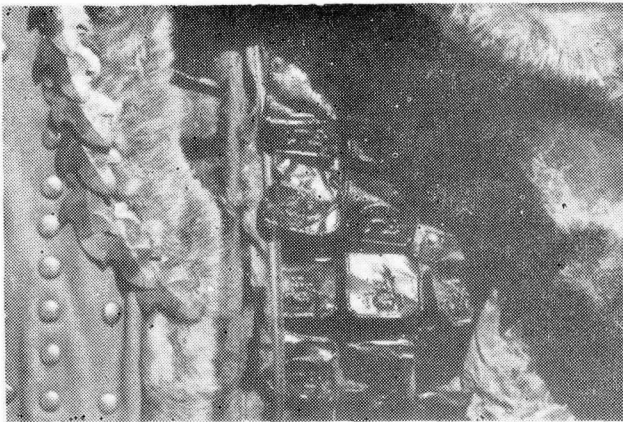


圖 3 구리미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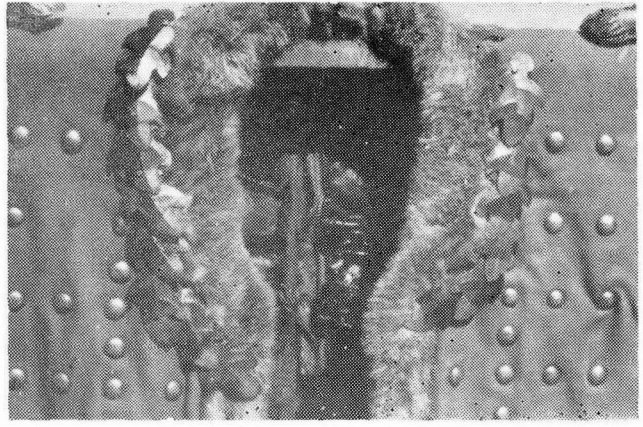


圖 4 사장식

를 살펴 보아야 하겠다.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와 交를 最初로 맺기는 一八九二(高宗 二十九年) 六月 二十三日 東京에서였다. 때에 우리나라 全權大臣은 權在衡(이였고, 오스트리아 全權大臣에는 마젤렌(Roger de Begeleben)이 있는바 이들간에 韓奧修好條約이 締結되므로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갑옷이 우리나라 皇帝가 當時 오스트리아 皇帝인 프란츠 요셉일세(Franz Joseph 1830~1916)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一八四八年에서 一九一六年까지 執權하였고⑦, 우리나라 皇帝는 高宗과 純宗으로 高宗은 一八九七年 十月부터 一九一〇年이니 萬諾 우리나라 皇帝로부터 外交官을 通해 下賜하였다면 一八九七年 十月부터 一九一〇年 사이로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무슨 뜻에서 下賜하였는지에 對하여서는 調査와 研究 不足의 탓으로 詳述하지 못하고 다만 現地에서 提供된 資料를 根據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一, 투구(胄)

가, 頂蓋部分

頂蓋의 處理는 亦是 우리나라의 獨特한 製法인 幹柱를 連해 槩毛를 드리웠고, 그 위로는 마름모 모양의 小珠와 그 위로는 조금 크게 透彫圖

球 그리고 또 小形圓球에 이어 세 방향으로 치솟는 雷文과 그 위를 寶珠로 마무리한 매우 精巧한 솜씨의 製法이다. 이러한 製式은 勿論 同一한 模樣은 아니라 할지라도 흔히 볼수 있는 바 즉 三枝槍이라던가 寶珠形 등을 爲始하여 火焰紋等을 볼수 있다(그림 七, 八참조).

나, 鉢과 前庇部分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우리나라 典型的인 獨特한 技法이다. 全體를 前後左右 四注로 나누어 그 注안에는 무엇인가 透彫되었을 것이나 寫眞으로는 仔細치 않다. 그리고 그 前面 左右 안에는 龍이 마주 바라본 狀態인데 꼬리를 頂上을 向해 휘어쳐 돌리고, 앞발로는 火焰이 퍼들은 如意珠를 잡으려는 形狀이다. 그리고 右側注 中央을 連해 鳳凰이 나래를 편 模樣으로 透彫되어 貼付되어 있다. 한편 下半部 即 머리가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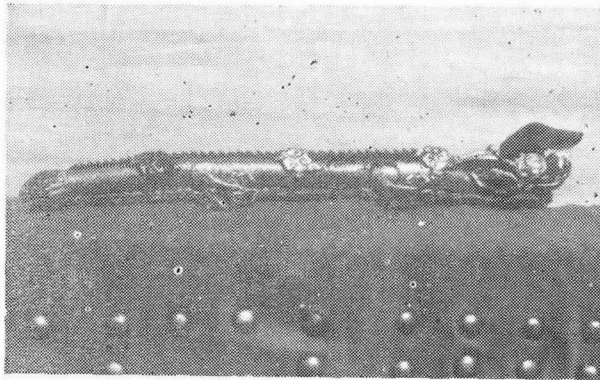


圖 5 肩 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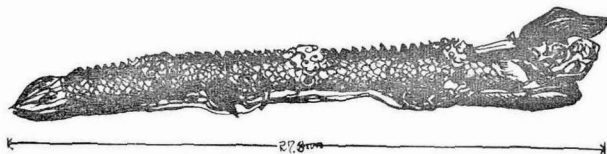


圖 6 肩龍實側圖

가는 곳은 正面左右에 如意頭紋과 唐草紋이 浮彫되어 周圍를 돌리었고
 해가리개 즉 鶯은 반달 형식으로 하여 그 外部에는 龍紋을 透彫하였다.
 또한 이마를 엄호하는 이마 가리개는 左右
 를 連해 山形을 이루고 그 正中에는 圓形안
 에 龍紋이 左右에 陽出하였으며, 그 圓을
 中心으로 左右에서 唐草紋이 밀려드는 형상
 이다(그림 九참조).

다, 목가리개(經)

투구의 下半部를 連해 목과 어깨를 감싸
 주는 이 목가리개는 左右와 後部로 나누어
 졌다. 이는 約 四十센치의 길이로 頭釘은
 八段으로 連綴하였고 正中에는 鍍金製圓形
 裝飾이 있다. 頭釘段 上部에는 鍍金製花紋
 을 鑄造하여 새개를 옆으로 貼付하였고 亦
 是 周圍에는 毛皮를 돌리었다. 그리고 左右
 가리개 끝 部分에는 투구를 固定着用할 때
 매는 끈이 달려 있는데 이는 뒤로 제쳐 때
 기도 하는 것이다. 투구 內部에는 두점으로



圖 7 頂 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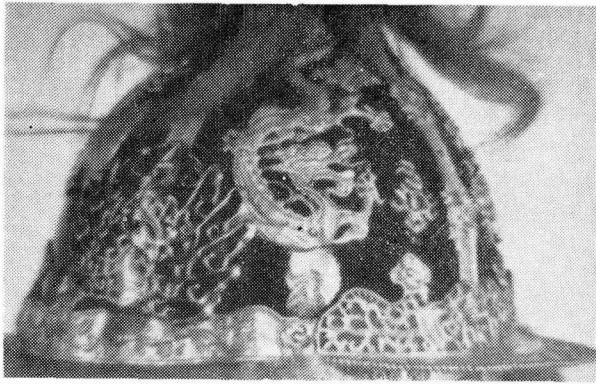


圖 9 상하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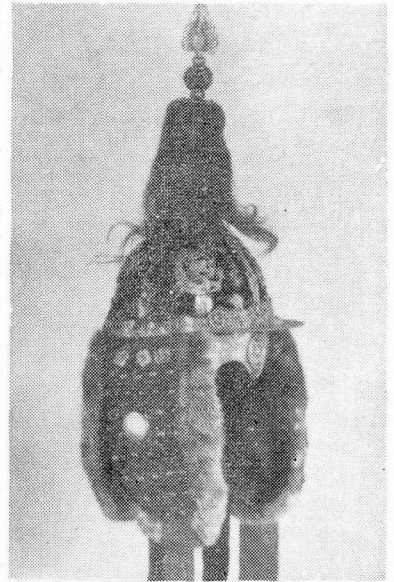


圖 8 투 구

된 靑色명주모자가 貼付되었
 다(그림 一〇참조).

二, 갑옷(甲)
 가, 表面의 形態
 갑옷의 모양이나 만들새는
 前記한 民俗館 甲冑와 別差
 없다.

亦是 靑色명주로 띠를 달았다. 그리고 옷깃을 連해 단 그리고 소매부리
 에는 毛皮를 돌렸고 앞가슴 왼쪽 合衽處에는 鍍金製단추 새개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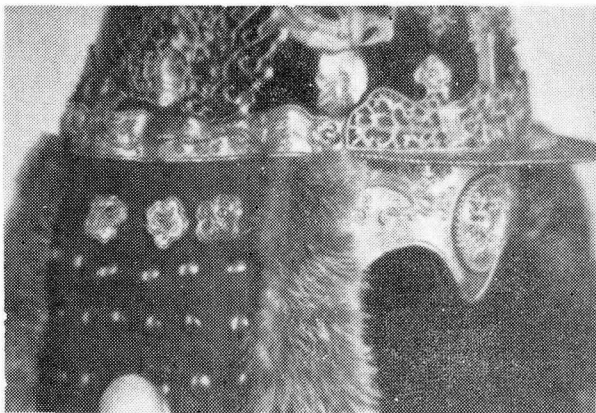


圖 10 하반부와 목가리개

頭釘은 鍮製로 어깨에서 앞가슴을 連해 井字形으로 叢叢(叢叢)하게 하고 腰部以下는 左右에 單條로 處理하였다(그림 一三참조).

나, 깃과 소매부리

동글게 패인 깃으로 앞술기에 이어 따스하게 毛皮로 둘러었다. 그 외부로는 鍍金製澤瀉葉을 하나 하나 따로 連結貼付하였는데 이는 불이는 形式만 다른 民俗館 갑옷과 그 만듬새가 같다(그림 一二참조).

다, 肩 龍

肩龍은 約四十센치의 길이로 亦是 四等分되었다. 즉 머리部分이 하나, 몸통部分이 둘, 꼬리部分이 하나로 分離되며 따라서 이는 亦是 民俗館 甲冑 肩龍과 같이 作動하게 되었다. 그리고 머리 앞쪽에는 如意珠가 달려있다(그림 一三참조).



圖 11 갑 옷

三、比 較

一、투 구

우리나라 투구가 現在 傳存되고 있는 實態를 參酌하면 大略 다음에 例示하는 바로서 이는 투구의 頂蓋와 前後面에 裝飾된 깃만을 把握해 본 것이다.

투구의 傳存實態一覽表

| 所 藏 處 | 名 稱 | 狀 態 |
|-----------------|-------------------------|---|
| 陸軍士官學校 軍事博物館 | 黃頭釘甲冑 (元帥 및 副元帥用) | 1, 모두 頂蓋損失, 3, 목가리개 損失 ※ 副元帥前後紋無 |
| 高麗大學校 附屬博物館 | 豆錫鱗甲冑 (元帥用) | 1, 頂蓋三枝槍 3, 목가리개 있음 2, 前後鳳凰紋 |
| 國立慶州博物館 | 豆錫鱗甲冑 (元帥用) | 1, 頂蓋損失 3, 목가리개 있음 2, 前後後鳳 |
| 和 蘭 民族博物館 | 豆錫鱗甲冑 (銘文無) | 1, 頂蓋火焰文 3, 목가리개 있음 ※ 前部下部해대 있음 2, 前龍(後未詳) |
| 오스트리아 藝術史博物館 | 黃頭釘甲冑 (銘文無) | 1, 頂蓋雷文 3, 목가리개 있음 2, 前面龍側面鳳 |
| 日本東京 寶物遺品館 | 皮甲冑 (元帥用) | 1, 頂蓋寶珠 3, 목가리개 있음 2, 前龍後鳳 |
| " | 龍紋甲 (銘文無) | 1, 頂蓋損失 3, 목가리개龍紋刺繡 ※ 前後注는 單條 2, 側面에 龍紋象嵌 |

以上の 實態에서 部分別로 그 狀態를 綜合하여 보면
깃과 頂蓋部分 完全한 것이 三點이나 모두 模樣이 다르다. 즉 三枝
槍、雷文、寶珠等이고

둘째 前後面 紋樣彫刻이 同一한 것은 高麗大學校所藏品으로 鳳凰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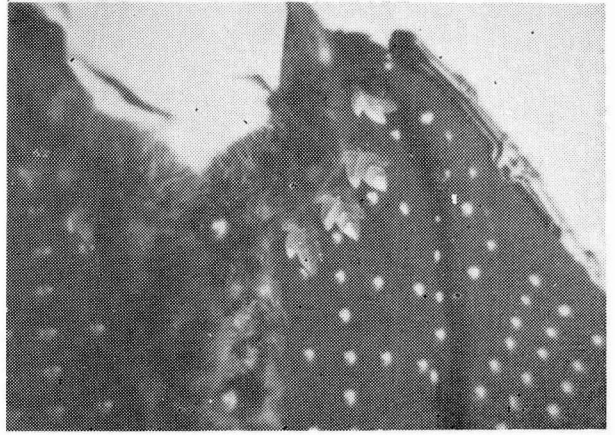


圖 12 깃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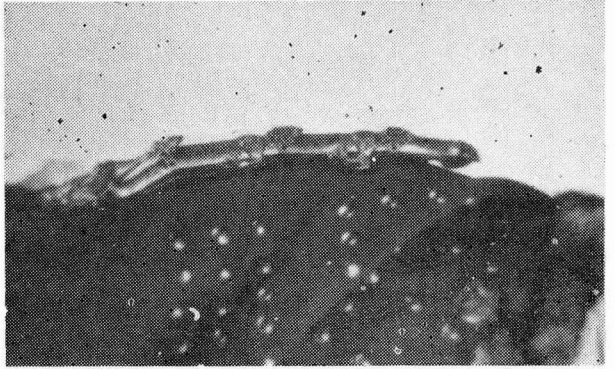


圖 13 견 용

뿐이며, 前面이 龍, 後面이 鳳凰인 것이 四點으로 강 두드러진 숫자이다. 한편 側面에 만이 龍紋을 象嵌한 것은 注目の 對象이며, 龍과 鳳紋을 同時에 使用한 것은 當時의 製法上으로 支配的이었음을 立證한다. 셋째·목가리개는 大概 갑옷 만들새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本稿에서 例示한 外에도 溫陽民俗博物館을 爲始하여 東亞大學校 博物館에도 所藏하고 있으나 本稿에서는 다만 그 紋樣과 狀態만을 比較 하고자 함이었으므로 줄이기로 하였다.

二, 갑 옷

갑옷을 만드는 製法에 依하면 步兵의 것은 그 길이가 길어야 하고 騎兵의 것은 그 길이가 짧아야 하였으며, 활을 쏘는 弩手의 것은 그 품이

둘째·裏面에 貼付한 札甲은 모두 얇은 銅板으로 使用하였고 안감은 靑色과 北靑色이니 別差가 없으며 셋째·깃들레의 澤瀉葉을 裝飾한 것은 그 模樣이나 製法은 같으나 다만 그 貼付한 方式만이 差가 있을 뿐이다. 넷째·어깨의 肩龍은 그 模樣이나 製法이 같고 다만 腰部 아래 앞쪽에 龍과 뒷자락의 호랑이 彫刻이 民俗館 갑옷에는 貼付되었으나 藝史館 갑옷에는 貼付되지 않았다.

너그럽게 하고 또 槍을 쓰는 槍手의 것은 그 품이 좁게 하였으니 이는 各己 그 쓰임새가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金鱗이나 刺繡를 놓아 만든 것은 奢侈나 美觀만을 取하였다고 指摘한 것을 보면 이 頭釘甲이야말로 必然 火器가 發達된 以後의 儀禮的인 儀式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特別히 頭釘甲은 實相 實用的인 것이 못되기 때문이며 事實은 그 着用者로 하여금 그 威容을 誇示하려한 갑옷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곁하여 더 附言한다면 현재까지 調査한 바로는 職位가 높은 位階의 官吏가 着裝하였으리라고 믿어지는 甲冑일수록 그 實用價値가 稀少하며, 전혀 裝飾物이 貼付되지 않은 甲冑는 그 만들새가 堅固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實用的인 甲冑에 對하여 詳述하기로 하고 民俗館 甲冑와 藝史館 甲冑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比較해 보면

첫째·表地는 모두 붉은색 羽緞으로 使用하였으며 옷단 周圍는 한결같이 毛皮를 使用하였다.

셋, 말

防禦裝備의 하나인 이 갑옷은 護身의 器具로서 예로부터 널리 使用되

어왔다. 그런 까닭으로 좁은 그의 方色에 따라 만들어 곧세고 가볍게 하므로써 活用하기에 便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特히 이 頭釘甲은 儀式用으로서 투구의 그 華麗한 裝飾은 모두 象徴的인 動物로 表現하였고 또한 갑옷에 나타낸 澤瀉의 尙武精神과 龍과 호랑이의 辟邪의인 것 그리고 札甲 하나 하나에 무늬화한 七寶紋等은 모두 着用者의 吉祥을 念願하는 뜻에서 使用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투구條에서 이미 例示한바와 같이 거의 完全形을 갖춘 갑옷은 國內에 保存된 것 보다는 外國으로 流出된 것이 두드러진 現狀이다. 이는 어느 時期 어느 方法으로 搬出되어 갔던간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民俗館 갑옷과 藝史館甲冑에 對하여 大略 간추려 보았다. 그러나 民俗館 갑옷은 筆者自身이 直接 調査하였으나 藝史館甲冑는 報告書와 寫眞에 많이 依存하였기 때문에 그 解說이 매우 未洽함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그러나 于先 더욱 넓이 資料를 蒐集하고자 하는 微衷에서 敢히 試圖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註〕

① 軍事博物館所藏品인 李鳳祥將軍의 甲冑에 對하여는 考古美術 第一三六一—三三七號로서 略述하였고, 昌德宮 傳御用甲冑와 呂伴將軍의 甲冑는 그 形態가 다름으로 後日로 期約한다.

② 이 갑옷은 오스트리아 「빈」市 所在 藝術史博物館에 所藏하고 있는 것으로 舊韓末 우리나라 皇帝가 오스트리아 皇帝에게 禮物로 보내 온 것이라 면서 同博物館은 現地駐在 韓國大使館에 다음 事項을 問議해 오므로써 알게 된 것이다.

첫째 .. 보낸 당시의 皇帝의 이름

둘째 .. 보낸 動機

셋째 .. 보낸 年代

넷째 .. 傳達方法

③ 國立民俗博物館(分類카—드)에 依함

④ 岡登貞治編 文樣의 事典 東京堂出版

⑤ 皮甲과 같이 實用的인 갑옷은 입고 벗기에 便利하도록 하기 爲하여 소매 배는 트고 다만 끈을 달아 매게 하였다.
權在衡 1854/1934

⑥ 初名은 在衡이나 後에 重顯으로 改名하였다. 그의 號는 經農이요, 本貫은 安東이다. 一八九二年 六月에 駐日公使로서 오스트리아公使와 修好條約을 締結하고 그 後 法部協辦을 거쳐 農商工部, 法部大臣을 歷任하고 韓日合邦으로 子爵이 되었다.

한편 文獻備考 卷一百八十三 交聘考十三 韓奧修好條規 條에 依하면

今上二十九年 五月 派全權大臣駐劄日本署理辦事大臣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權在衡與奧國男爵洛茲特畢格勒本訂立修好條規로 締結되었음다.

⑦ 大百科事典 卷六 4292, 5, 30, 學園社刊 P418參照

⑧ 高宗이 朝鮮朝第二十六代 王으로 即位하기는 一八六三年 十二月이었으나

皇帝로 位號를 變更하여 即位하기는 一八九七年 十月이었다.

⑨ 戒垣必備 皮甲條에 依함.